

“희생 강요 안 된다” 도의회 송전선로 특위 ‘마침표’

활동결과보고 채택 4대 과제 제안 주민수용성·에너지 분산체계 강조 새만금 RE100 거점 지정 촉구 송전망 지중화 확대 등 대안 제시



염영선 도의원



전용태 도의원

전북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염영선)’는 15일 제3차 회의에서 지난 1년 2개월간의 헌신적인 활동 성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비수도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중앙집중식 전력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고 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5년 4월 구성됐다. 이후 송전선로 경로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하며 활동을 이어 왔다.

그간 특위는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를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의 실현의 핵심 의제로 격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송전탑 최소화 국정과제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용산 대동령 실 앞 대정부 공동기자회견과 도내 시·군의회 특위와의 연대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RE100 지정 및 이전’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공론화를 끌어냈다.

또 ‘독일 에너지전환 시사점 토론회’,

‘국가기간전력망 입지선정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 왔다. 무엇보다 도내 시·군의회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손을 잡고 강력한 민·관·정 연대 체계를 확립한 것은 이번 특위의 주요 성과로 평가받는다.

특위는 이날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전력정책 추진과 미완의 제도 개선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동시에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에 4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제언한 과제는 ▲주민참여 중심의 전력망 입지선정제도 구축 ▲에너지 지산지소 기반의 분산형 전력 체계로의 전면 전환 ▲전력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및 새만금 RE100 국가전략산업 거점 지정 ▲지중화 확대 및 친환경 공

법 도입을 통한 주민 피해 최소화 중심의 송전망 구축 등이다. 이날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먼저 염영선 위원장(정읍 2)은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와 중앙정착, 관련 기관에 도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대규모 송전선로 경로지역 주민들의 깊은 갈등과 고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해 들었다”며 “주민수용성과 철학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지방소멸 특위 마무리...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 등 제안

1년 9개월 활동 종료 대응방향 제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1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1년 9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024년 10월 구성된 특별위원회

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인구위기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토론회와 우수사례 벤치마킹,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에는 ▲인구위기 및 지방소멸 대응 공론화 기반 마련 ▲생활인구 및 정주여건 중심

정책 전환 논의 ▲청년·출산·돌봄 정책 확대 기반 마련 ▲인구·재정·경제·교육 정책 간 연계 및 협력 강화 등 특위 활동의 주요 성과가 담겼다.

또한 특위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생활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전환, 청년 정착 및 가족친화 정책 강화,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영 개선, 외국인 정책 지원 체계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향후 전북

특별자치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은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특위 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인수위, ‘전북 피지컬AI 밸리’ 구축 시동

AI·로봇 기업 유치 나서 현대차 9조 투자와 연계 추진 새만금 기반 글로벌 AI 거점 구성

민선 9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전북 피지컬AI 밸리’ 조성 가치를 내걸었다.

이원택 당선인은 이번 주 ‘전북 피지컬AI 특별위원회’ 공동 발대식을 계기로 직접 AI·로봇·피지컬AI 기업들을 찾아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친다.

피지컬AI 실증단지 구축과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 계획 등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면서 지금이 피지컬AI 밸리 생태계 조성의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

신형식 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은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피지컬AI는 전북 대 전환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AI 산업은 이제 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전북이 가진 재생에너지와 새만금의 산업 인프라, 제조업 기반에 현대차그룹의 9

조 원 투자를 결합하면 전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피지컬AI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피지컬AI·미래산업 분과를 중심으로 산업 전략 구제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AI로봇과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다크팩토리(자율제조), 연구개발(R&D)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북 피지컬AI 밸리 조성이다.

인수위는 17일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인수위원회와 공무원, 기업인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김정호 KAIST 교수 특별 강연회를 연다.

‘HBM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정호 교수는 이날 글로벌 AI·반도체 산업 현황을 설명하며 전북 피지컬AI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18일에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이원택 당선인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광영길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피지컬AI 특별위원회 공동 발대식’을 개최한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는 현대차그룹, 두

산로보틱스, LG전자, SK텔레콤, 네이버, 레인보우로보틱스, NC AI 등 AI로봇·피지컬AI 관련 30여 개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발대식을 계기로 이번 주부터 이들 피지컬AI·로봇 기업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친다. 이를 통해 전북 피지컬AI 밸리 조성에 필요한 핵심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원회는 이 기간 기업 유치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산학협력 체계 구축까지 연계해 전북에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이날 △재생에너지·피지컬AI·미래산업 △체감성장 △도민주권 △글로벌 K △도민행복 등 5개 분과와 △533특 호남·제주 메가시티 △하계올림픽 △200조 AI·반도체 인프라 등 3개 특별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매점매석 행위 근절법’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재난 상황이나 수급 불안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買占賣惜) 행위에 대해 불법수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매점매석 행위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부당이득에 비해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없어 은밀하게 이뤄지는 위반 행위 적발에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재난 등 수급 불안 상황에서 매점매석으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매점매석은 위기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라며 “불법 이익보다 큰 책임을 부과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민생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도, 기능성식품 특구 실증 안전성 강화

안전점검위원회 열고 체계 점검 실증사업 위험요인 사전 검토

전북도는 1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안전점검위원회를 열고 실증사업의 안전한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에 앞서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안전점검위원회 위원과 관계기관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실증사업별 안전조치 수립 현황과 안전점검 계획을 검토하고, 실증 추진 일정과 계획의 적정성, 예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기능성식품 분야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역 농생명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3개 실증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기능성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섭취하는 제품과 관련된 분야인 만큼 실증 단계부터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위원회는 실증사업별 안전관리 방안과 비상대응체계,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위원들은 실증사업별 안전조치 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는 이번 안전점검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증사업 추진 전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증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구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도>

전북도,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예방인권 보호 인식 확산 나서

전북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에 나섰다.

기념식에는 어르신과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노인인권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노인학대 예방 영상 상영,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증진 유공자 표창,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에 이어 노인학대사례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박형운 변호사가 ‘학대 피해노인 행사열차상 권리보호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노인학대 대응 역량 강화와 권리 보호 방안을 공유했다.

이에 앞서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는 지난 1일과 10일 순창시장, 전북대학교 구정문, 부안군 홈마트 일원에

서 홍보물 배부와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며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활동을 펼쳤다.

매년 6월 15일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운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노인학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노인 인권 보호와 예방 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관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더욱 높아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학대 피해를 입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신고하면 전문상담원의 상담과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정철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수칙

운전자

1.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하세요
2. 불법 주정차는 하지마세요
3.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추세요

어린이

1.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요
2. 등하굣길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아요
3. 초록불에 횡단보도로 천천히 건너요



전주시 '청년 창업 금뚝 상담소' 운영

청년 창업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전주시가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26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 상담 프로그램인 '청년 창업 금뚝 상담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은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창업 고민을 해결하기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고민을 듣고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상담에는 경영전략 분야 전문가가 참

여해 1:1 대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네이버 폼(naver.me/5fddGcgA)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 어르신 "빛나야 보인다, 빛나야 안전하다"

실버카 안전조명등 설치 어르신 야간 보행 안전 확보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15일 교통약자인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수군에서 전동휠체어 등 실버카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안전조명등을 설치했다. '실버카 안전조명등' 설치 사업은 LED 조명등 전문업체인 ㈜에스라이팅에서 교통안전용품 제작반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와 함께 고령자 안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은 고령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달인 6월, 전북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 안심(안전)을 심다' 교통안전 집중 홍보 대책의 일환으로 장수군 실버카 이용 어르신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15일 교통약자인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수군에서 전동휠체어 등 실버카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안전조명등을 설치했다 <사진=전북경찰청>

실버카는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는 필수 보행 보조구이지만 야간에 운전자가 실버카 이용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가로등이 부족한 구간이 많아 야간 보행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경찰은 안전조명등을 실버카에 부착하여 야간에도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사업으로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위치를 보다 명확히 알려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명등 설치 활동과 함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야간 이동 시 밝은 옷을 착용하고, 무단횡단 금지, 횡단 시 좌우 확인 등 교통안전 홍보도 병행 실시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소방동요 경연 '최우수상'

전주 효천초 학생 15명 참가 밝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전주효천초등학교가 지난 12일 열린 제24회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전주완산소방서 대표팀으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어린이들이 소방동요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전주효천초등학교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소방동요 '함께 쓰는 이야기'를 선보였다.

학생들은 안정적인 가창력과 짜임새 있는 안무, 밝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사례분석 회의 대응 능력 향상 도모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지난 11일 군산경찰서에서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복적으로 신고 접수되는 사건 처리의 전 과정을 살펴보는 사례분석 회의를 개최했다.

사례분석 회의에서는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팀장들이 참석하였고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사건 관리기법 및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하여 빈틈없는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관계성 범죄 사건관리 기법 공유 피의자 위험성 평가 분석 재발·보복 방지 방안 등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좀더 나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례분석 회의를 진행하고 수사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어진박물관 조선왕실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 재조명

이은주 명예교수 '월간어진' 강좌

전주시 어진박물관은 어진에 그려진 조선왕실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이에 어진박물관은 오는 18일 이은주 국립경국대학교 명예교수의 '월간어진' 3회차 강좌를 계획했다.

이 교수의 강좌는 '어진에 담긴 조선왕실의 복식'을 주제로 어진과 왕실기록화 등 조선왕실 회화 작품 속에 그려진 왕실



복식을 조명한다. 강좌는 올해 동안 총 5회 과정으로 이어진다.

강좌를 맡은 이 교수는 약 40여 년간 우리나라 복식에 대해 연구해 온 국내 한국 복식사 연구 권위자 중 한 명으로, 한복 연구에 대한 공로로 2025년 '한복문화 공로상'을 표창받기도 했다.

'월간어진'은 전주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인문학적 소양 및 박물관과 연계된 문화 유산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개설된 교

양강좌다. 이번 강좌에 이어 △조선 왕실의 전주 성역화 프로젝트(7월16일) △태조 진전에 담긴 건축 특성과 공간 구성(8월13일) 등이 따른다.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 및 현장 참여로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회차별 2주 전부터 어진박물관 누리집 내 예약 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50+ 어른학교' 수강생 모집

50+ 세대들의 '건강한 일상' 기대 노후 설계·자연 속 치유 활동

전주시민 대상으로 한 '50+ 어른학교' 수강생 모집이 시작된다.

'50+ 어른학교' 수강생 모집은 7월 개강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 모집은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노후 설계 정보와 자연 속 치유 경험 제공을 위해 어진

다. 과정은 '국민연금공단과 함께하는 노후준비 과정', '힐링 포레스트 숲 체험활동' 등으로 마련된다.

과정은 은퇴 전후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인생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둔다.

내달 6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총 3차시로 운영되며 모집인원은 20명이

다. '힐링 포레스트 숲 체험활동 여름편'은 숲체험 활동가와 함께 전주 인근 숲에서 진행되는 야외 체험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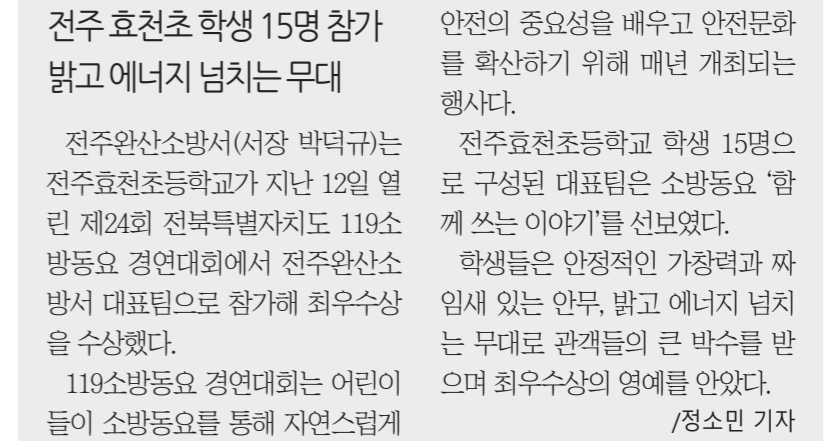
참가자들은 다양한 숲체험 활동을 통해 일상 속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건강한 여가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힐링 포레스트 숲 체험활동 여름편은 내달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전주 인근 숲에서 총 6차시로

운영되며 모집인원 역시 20명이다. 노후준비 과정은 재무와 건강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렇듯 시는 이번 '50+ 어른학교' 과정을 통해 50+ 세대의 건강한 일상을 기대하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수강 신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사례분석 회의 대응 능력 향상 도모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지난 11일 군산경찰서에서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복적으로 신고 접수되는 사건 처리의 전 과정을 살펴보는 사례분석 회의를 개최했다.

사례분석 회의에서는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팀장들이 참석하였고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사건 관리기법 및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하여 빈틈없는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관계성 범죄 사건관리 기법 공유 피의자 위험성 평가 분석 재발·보복 방지 방안 등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좀더 나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례분석 회의를 진행하고 수사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자원순환시설 'CEK(썬)' 현장방문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15일 여의동 소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인 CEK(썬)을 방문해 자원순환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서장 현장방문행정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대량의 폐기물 적재와 소각설비 운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 및 장시간 연소로 확대될 우려가 높은 자원순환시설의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처인 CEK(썬)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소각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증기를 인근 사업장에 공급하는 등 지역 산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화재 이력이 있는 만큼 전주덕진소방서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을 비롯해 예방안전팀장 5명과 CEK(썬) 지사장, 환경안전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3명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 지역민 전기버스 화재 대응훈련

'무인파괴방수차' 실전 강화 차별화적 대응 전략 핵심

전북소방본부가 무인파괴방수차 활용한 실전 대응훈련을 펼치며 지역민 화재 실전대응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15일 전기버스 화재 특성 현장 대응능력 강화 위한 '무인파괴방수차' 실전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전기버스 화재 특성에 맞는 진압전술을 숙달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기버스는 대응량 리튬이온 배터리가 차량 상부에 설치된 구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높은 열과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화재가 장시간 지속되거나 재발화할 가능성도 있다.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해 진압할 경우 감전 위험이 수반될 수 있어 일반 차량 화재와는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15일 전기버스 화재 특성 현장 대응능력 강화 위한 '무인파괴방수차' 실전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이에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는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효과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원격 조종 방식의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대응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훈련을 진행했다.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을 통해 고열, 유독가스, 폭발 위험이 있는 현장

에 접근해 방수와 냉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장비로,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효과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특수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해당 장비를 활용한 실전형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 기후 대응체계 강화

전주기상지청 신언성 지청장은 15일 혁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초청해 폭염중대경보 신설 등 기상정책을 설명했다. 신 지청장은 이 자리를 통해 기상예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기상관측장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참석한 협의체 위원들에게 기상관련해 사항들을 안내했다.

특히 신 지청장은 이날 오후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한 지역민 안전 확보 위한 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관련해 위원들은 기상관측장소로 이동해 전주 대표지점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등을 관측하는 기상관측장비를 직접 확인하며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신 지청장은 "앞으로 예보 정확도 향상과 신속한 정보 전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팔복동새마을협의회 지역어르신 건강지킴이 '앞장'

팔복동새마을협의회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보양나눔실천에 앞장섰다.

새마을협의회 나눔봉사실천은 지난 14일 팔복동 소재 지역 어르신들 100여명을 초청하며 건강위한 자장면나눔식사를 대접하며 진행했다.

나눔봉사실천은 팔복동새마을협의회 황정영 회장과 소개한 대성반점 김민호 사장의 노력에 의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차량이용 한 편의를 제공하며 나눔실천의 보람과 사회통합은 지역민사랑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식사가 끝난 이후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참석하신 지역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귀가 시키는 등 그 봉사활동에 대한 가치를 발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팔복동새마을협의회는 지난 3월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장면 나눔 봉사를 실시한 바 있다.

관계자 모두는 "맛있게 점심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준 지역 어르신들의 모습에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봉사실천에 앞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수산식품, 220만달러 규모 MOU 체결

서울국제식품산업 대전서 우수 제품 전시 및 상담 진행

전북도-전북바이오진흥원 운영 전북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26)'에 참가해 도내 수산식품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북공동관을 운영했다.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식품 바이어와 유통업체, 수입·수출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하는 B2B 중심의 국제 식품산업 전시회이며 이번 전시회에는 도내 수산식품 분야 기업 10개사가 참가해 전북공동관을 구성해 우수 제품 전시와 시식,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참가 기업들은 국내 대형 유통사와 식품 전문 바이어,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품 경쟁력을 소개하며 신규 거래처 발굴과 유통망 확대를 위한 상담을 활발히 이어갔다.

특히 행사 기간 중 동이식품, 옹고집, 이고장식품, 에이치온 등 4개 기업은 해외 바이어와 총 220만달러(약 33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협약은 미국, 러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수출 계약과 해외 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국내외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전시회"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농수산식품 기



<사진=바이오진흥원>
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앞으로도 전북 특별자치도와 함께 전북 농수산식품의

전기안전공사 '환경·안전 통합교육' 인정 장관표창 수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에 환경교육 활성화와 국민 환경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국 사업소 대상 찾아가는 안전패트롤 및 다양한 형태의 안전교육 체계를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며, 사육 시설점검을 통해 유해요인 700여건을 발굴·개선하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기 업계 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환경·안전 교육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 왔다.

최근 공사는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 △작업환경 개선 △특수건강검진 △유해물질 취급자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며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직원 건강증진 활동도 지속 추진해 질병성 산업재해 "Zero"를 달성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하고 있다.

남화영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보건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한국 원산 유전자원 64% 안전 중복보존

농업유전자원 6000자원 '국제종자저장고' 추가 기탁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5일 노르웨이령 북극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Svalbard Global Seed Vault)에 우리나라 농업유전자원 6000자원을 추가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하는 유전자원은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가 수집·보존해 온 한국 원산 식물유전자원으로 총 36작물 6000자원이다.

여기에는 우리 토종 종자 2467점도

포함돼 있다.

토종 종자 2467점은 △벼(2098자원) △참깨(853자원) △보리(544자원) △콩(478자원) △밀(415자원) △유채(282자원) 등이다.

기탁 자원은 개별 밀봉 포장 후 7개의 특수 보존 상자(블랙박스)에 담겨 냉장 상태로 지난 5월 21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출고됐다.

이 자원들은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 개방 일정(6월 12~15일)에 맞춰 입고된다.

농촌진흥청은 2008년부터 노르웨이 정부와 협력해 우리 유전자원을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 중복보존 하고 있다.

이번 기탁이 완료되면 우리나라가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 보존한 유전자원은 4만 8,272자원에 이른다.

한국 원산 유전자원의 약 64%가 국제 안전보존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식물 유전자원 보유국으로 약 285,000여 자원을 보존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해 국내외 유전자원 보존기관과 '식물 유전자

원 4중 안전 중복보존 체계(전구, 수원, 봉화, 스발바르)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중복보존 된 유전자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유전자원이 소실됐을 때 복원 자원으로 활용된다.

한편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는 영하 18도의 영구동토층에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종자 저장시설로, 전쟁·자연재해·기후 위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인류의 식량자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세계 93기관에서 기탁한 5974종 1,194,944 유전자원이 보존돼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상의 김정태 회장 "방산조성사업" 대환영

전북도-전주시, 공모 선정

"전북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에 대한 영합니다!"

전북지역상공인 모두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대한민국 첨단 방위산업 중심지로 도약에 큰 환호를 터트렸다.

전북상공인들의 '도약환호' 중심에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난 11일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선정은 국가로부터 △전북도가 보유한 세계적인 탄소소재 산업 경쟁력 △첨단 복합소재 기술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 △새만금 실증 인프라 관련 사항들에 따른 평가에서 받은 값진 인정성과물 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북지역상공인들은 앞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첨단 방위산업 전환점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확신"하며 큰 기대를 걸었다.

방위산업은 특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인 동시에 첨단 제조업과 인공지능(AI), 무인체계 등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관련해 전북지역상공인들은 이번 사업을 전북 강점인 탄소산업을 미래 방위산업과 연계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신성장동력 창출 계기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전북 상공인들은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21대 대통령



김정태 회장 방위산업 선정 대환영

선거에 바라는 경제계 제안"을 통해 '첨단소재 기반 차세대 K-방산 허브 구축'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전북 방위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지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 △익산상공회의소 김원오 회장 △군산상공회의소 조성우 회장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최중필 회장 △김제상공회의소 김윤권 회장 △전북도상공회의소 전회원은 "전북 상공인들은 180만 도민과 함께 방산혁신클러스터 성공적 조성과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힘을 보태겠다"며 "이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첨단 방위산업 중심지로 도약해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 기여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에게 "방산혁신클러스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적극 강구했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공개모집

25일까지 관련서류 제출 1년 단위 연임 가능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 10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모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금이사 지원자는 오는 25일까지 관련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이메일(npshr@nps.or.kr) 및 등기우편((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또는 방문 접수(대리 접수 가능) 중 택일으로도 가능하다.

모든 접수는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방문접수 중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 이메일 접수 시 추후 안내에 따라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서류접수 마감 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및 추천

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 임명한다.

자격요건은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 분야 3년 이상 경험자에 한해서이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금이사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기금이사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원서 기재 내용 '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관련해 지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이번 기금이사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태 기자

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 임명한다.

자격요건은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 분야 3년 이상 경험자에 한해서이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금이사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기금이사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원서 기재 내용 '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관련해 지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이번 기금이사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관원,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전북농관원')은 15일부터 26일까지(12일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최근 가축 전염병 확산과 중동 정세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북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7

개반 15명을 투입해 돼지고기(족발, 보쌈) 수입·유통업체, 가공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 원산지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외국산을 판매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안

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 정보에는 외국산 원료 등을 표시한 경우 등이다. 전북농관원 한종현 지원장은 "돼지고기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1588-8112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폭염대비한 전북은행 '무더위 쉼터' 인기몰이

본격적인 올여름 폭염에 따른 지역민들의 건강 적색 신호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전북은행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넘어 지역민 여름지킴이에 앞장서며 우선적인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더위쉼터 운영은 지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을 내방해 무더위에 따라붙는 △수분보충 △열내림을 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해 전북은행은 영업점에 지역민 지원 위한 생수비치와 자리정돈 등 특별한 지역민 쉼터 제공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박춘원 은행장은 "지역민들은 폭염 발생 및 더위는열 발생 시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폭염건강지킴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북은행 무더위쉼터 운영을 통해 폭염으로부터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식품부,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성과공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한 3개 청년팀에게 장관상이 수상됐다.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62명은 지난 5월 한달 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수 서비스의 공백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들이 도출한 10개 지역 맞춤형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년들의 생생한 사례 발표를 진행하며 농촌 지역에 외식, 생필품, 생활수리 등 소매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점 등 문화·여가 및 대중교통 등이 열악한 여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 장수 '현장의낙원' 팀은 영세 농들의 영농자재 구매를 위해 각자 읍내까지의 이동을 감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동형 영농 마켓'을 제안했다.

전북 장수 '이음과채움' 팀은 청소년들의 기본소득 소비처 부족 문제에 주목해 '생활밀착형 복합서점'을 제시해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농식품부는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6월 중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시장 안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본격적인 올여름 폭염에 따른 지역민들의 건강 적색 신호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전북은행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넘어 지역민 여름지킴이에 앞장서며 우선적인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더위쉼터 운영은 지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을 내방해 무더위에 따라붙는 △수분보충 △열내림을 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해 전북은행은 영업점에 지역민 지원 위한 생수비치와 자리정돈 등 특별한 지역민 쉼터 제공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박춘원 은행장은 "지역민들은 폭염 발생 및 더위는열 발생 시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폭염건강지킴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북은행 무더위쉼터 운영을 통해 폭염으로부터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정읍시, 애호박연구회 20명 맞춤형 교육

정읍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 대목을 겨냥해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에서 애호박연구회 소속 농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고온기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기후 변화로 한여름 폭염이 잦아지면서 농가가 겪는 현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작목인 애호박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 농가 소득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애호박을 추석 성수기에 맞춰 시장에 내놓으려면 한여름에 정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찌는 듯한 더위 탓에 많은 농가가 재배에 어려움을 느껴 9월 초순으로 일정을 미루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여름철 온실 등 농업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추석 전 출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잦았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름철 맞춤형 재배 기술 보급에 나섰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동금 박사는 고온기 애호박 재배 기술과 생육 환경 관리 요령을 상세히 설명했다.

병해충 예방 기술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재배 관리 방안도 다뤘다. 참석한 농민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묻고 실질적인 답을 구하는 맞춤형 상담 시간도 가졌다.

강용원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재배 기술 확보는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농가들이 여름철 재배 기술을 완전히 익혀 추석 출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전북교육청 ‘청렴 콘텐츠 공모전’ 개최

쇼트폼 영상 및 이모티콘 등 4개 분야 총 20편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6년 전북교육 청

렴 콘텐츠 공모전'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참가 자격은 기존 도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해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됐다. 공모 분야는 쇼트폼 영상과 N행시, 이모티콘, 포스터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자는 '실천으로 완성하는 더 청렴한 전북교육'이라는 지정 주제에 맞춰 작품을 제작한 뒤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분야별 심사와 표절 검증 등을 거쳐 오는 8월 4일 부문별로 5편씩 총 20편의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정된 20편의 작품은 향후 전북교육청의 온·오프라인 청렴 홍보 및 교육 자료로 사용된다.

이흥열 감사관은 "올해는 참여 대상을 넓힌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교육공공체의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배 직장인 농구대회' 열어

도내 9개 팀 참가

정읍시 농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제2회 동학농민혁명배 직장인 농구대회'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정읍체육관에서 전북 지역 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직장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늘리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내 각지에서 모인 9개의 직장인 팀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경기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행사 열기는 경기장 밖으로도 이어졌다. 대회에 출전한 선수단과 관계자들은 일정을 마친 뒤 정읍 관내 음식점과 상가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번 행사가 단순한 체육 교류를 넘어 지역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시 농구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농구라는 운동을 매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이 농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정읍체육관에서 '제2회 동학농민혁명배 직장인 농구대회'가 열렸다. <사진=정읍시>

전교조 전북지부, 완산학원 부당 전보 규탄

“부당 전보 제도화 중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완산학원 임시이사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보 취소 결정을 무시하고 이사장 단독 인사가 가능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완산학원은 지난 2월 11일 교원인사위원회의 7대 1 부결 결과와 학교장 제청 누락 등 절차를 무시한 채 박교사의 전보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해 전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임시이사회는 박 교사를 원직에 복귀시키는 대신 '긴급 전보'를 근거로 인사위원회와 학교장을 배제하는 '법' 내 전보' 조항을 신설해 인사권을 이사장 1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위법 소지가 있는 정관 개정안 승

인을 거부하고 임시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과 즉각적인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바리 청산을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회가 오히려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리고 교원 길들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부당 전보를 제도화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완산학원 이복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고사 등 절차를 무시한 채 박교사의 전보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관 개정 논란에 대해서도 "임시이사회 체제에서는 정관 개정 권한이 제한적인 만큼, 법인 측의 재논의 의사 여부를 포함해 운영 전반에 위법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완산학원 임시 이사회는 16일 회의를 통해 인사에 관련된 정관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2026 대한민국 우수주거 전시회' 개최

17개 산업체 출품작 전시

군산대학교는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대학본부 1층 로비에서 '2026년 대한민국 우수주거 전시회'를 진행한다.

한국주거학회가 주최하고 군산대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부가 초청해 마련된 이번 순회 전시에는 국내 17개 설계사무소와 건설사 등 산업체가 참여한 작품을 출품했다.

전시 모델은 단순 민간 및 공공 주거 건축물 형태를 넘어 공동체 형성, 노약자

맞춤형 주거, 효율적인 운영 관리 등 현대 사회의 주거 관련 현안과 대안을 포함해 구성됐다.

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각 기관이 보유한 주거 설계 사례를 현장에 전시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성미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학내 구성원과 지역민들이 국내 주거문화의 현수소를 탐구하고 관련 정보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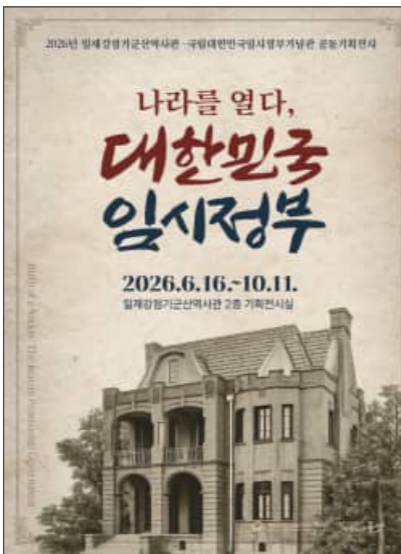
/최성민 기자

군산역사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획전

10월 11일까지 개최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11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기획전시 '나라를 열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과 독립운동의 전개, 광복 후 한국의 여정 속에서 군산이 맺은 역사적 접점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 군산 사람들의 활동과 광복 이후 임시정부 요인들의 한국 과정에서 군산비행장이 지닌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한국과 계승의 흐름을 따라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나로 세워지다'에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헌법과 의회를 갖춘 민주공화제 정부로 출범한 과정을 소개한다. 2부



<사진=군산시>

3부 '그대들 돌아오시나니'에서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한국 과정을 소개한다. 이 가운데 1945년 12월 1일 임시정부 요인 2진을 태운 수송기가 폭설로 군산비행장에 착륙한 사실을 통해, 군산비행장이 임시정부 한국의 길목이 되었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4부 '대한민국 여기서 시작하다'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이 광복 이후 대한민국으로 계승된 과정을 소개한다. 헌법, 국호, 태극기, 애국가, 국경일 등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여러 상징 속에 남아있는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관계자는 "이번 공동기획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군산이라는 지역의 기억 속에서 함께 살펴보는 자리"라며 "시민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와 군산이 함께한 뜻깊은 역사를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소설 아리랑 문학 탐방 성료

김제시립도서관은 지난 13일 '소설 아리랑(12권) 함께 읽기' 프로그램 참여자 및 탐방 신청자 29명과 함께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핵심 배경지인 김제·군산 일대로 문학 탐방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대하소설 '아리랑'은 일제 침략기부터 해방기까지 한민족의 끈질긴 생존과 투쟁, 이민사를 다룬 대서사시다.

김제와 군산을 시작으로 일본, 만주, 중앙아시아, 하와이로 이어지는 민족 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일제의 폭압에 맞선 우리 민족의 처절한 삶과 투쟁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이번 탐방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아픈 흔적이 남아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는 한민족의 아픔과 저항의 역사가 깊이 서린 곳으로, 이번 탐방이 김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이 문학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2026 예술로 지역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2026 예술로 지역사업'에 참여할 참여예술인을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술로지역사업(예술로 이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고, 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기업·기관·예술인 간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한 예술인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인 6월 8일 기준 예

술활동증명 유효자이면서 도내 주소지를 둔 예술인이다.

재단은 총 36명의 참여예술인을 선정하고 이후 기업·기관·리더예술인과 매칭을 통해 7월부터 11월까지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하며, 참여예술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신청서 양식 및 공모 내용은 재단 공식 누리집(jb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jbct2024@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안전에 일상을 더하다

군산해경, 의료 사각지대 연도 응급환자 이송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14일 오후 군산시 옥도면 연도에서 발생한 70대 응급환자를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연도 수도관 정비공사에 작업 중인 70대 남성이 각혈 중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연도에서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정기 여객선은 오전 9시와 오후 1시 30분 운항 이후 끊긴 상황으로, 환자를 육지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해상 긴급 이송이 불가피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이송체력을 급파했으며, 비응황으로 이송해 119에 인계했다.

최귀영 군산해경 상황실장은 “도시지역은 의료기관 접근이 제한되고 정기여객선 운항시간 종료 이후에는 육지로 이동이 어려운 만큼, 응급환자 발생 시 해경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정읍시립예술단 월간 정기 공연 ‘연희’ 24일 막 올려

정읍시가 호남우도농악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시립예술단 제5회 월간 상설공연 ‘연희’를 오는 24일 오후 7시 연지아트홀 무대에 올린다.

시립예술단은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상설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한 해 동안 국악단 6회, 농악단 3회, 합창단 2회 등 총 11회의 무대가 열리는 가운데, 이번 5회 차 공연은 시립농악단이 맡아 신나는 연희 한마당을 준비했다.

무대는 정읍농악 기반의 가락과 장단으로 알차게 채워진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흥겨운 옛타령과 농악의 진법을 살린 사물판고, 정읍농악의 꽃으로 불리는 부포놀이가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무대를 보여줌으로써 정읍농악 특유의 멋과 흥을 널리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지속해서 마련해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 예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금마고도 도시재생 주민 참여로 변화 만든다

익산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익산시는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공동체 ‘안테나팀’이 ‘금마 안심 빛으로 잇는 길’ 사업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익산시가 지원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안테나팀은 금마고도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제안해 공모에 선정됐다.

주민들은 현장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조명이 필요한 구간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경계서 태양광 조명과 고보조명을 설치해 골목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또한 야간 보행 안전 향상은 물론 금마고도의 경관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익산, 장마철 침수 막는다 2(題)

정읍시, 빗물받이 1만 250개 준설

정읍시가 다가오는 장마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를 막기 위해 관내 1만 250개의 빗물받이 내부 퇴적물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토사나 낙엽이 배수 성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자체 보유 인력과 임차 장비를 모두 투입해 빗물받이에 쌓인 이물질을 치우는 중이다.

이번 작업은 빗물받이가 막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물이 빠지는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저지대와 상습적으로 물에 잠기는 구역이 겪을 수 있는 수해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재난 예방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정”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우기 대비 환경정화

익산시 모현동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피해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섰다.

모현동은 15일 통장협의회와 동 직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 번 환경정화는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도로 침수와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침수 우려 지역 3개 구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주변에 쌓인 퇴적물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배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익산군, 우기 대비 환경정화

익산군 통장협의회장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정화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모현동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숙 모현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민 통장협의회와 직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과 환경정화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본격 추진

빅데이터 분석 및 직원 특화교육 실시

군산시가 AI 시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관행과 경험 중심 행정에 벗어나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대표적인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사례로는 매년 실시하는 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교육이 있다.

먼저 군산시는 지난 12~14일 개최된

‘2026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사 데이터와 현장 설문조사를 결합해 축제 방문객의 연령과 성별, 지역별 방문 현황, 체류시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방문객의 축제장 체류시간 증대와 지속 가능한 축제 성장 전략 수립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사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성과를 높이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조직 내부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부서 중간관리자 6급과 실무를 담

당하는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급별 맞춤형으로 진행됐으며, 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검색 방법, 실제 행정업무 적용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운영됐다.

고영숙 디지털정보담당관은 “앞으로 행정의 성과는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귀농인 창업·주택자금 지원

정착·영농 기반 마련... 내달 6일까지 신청

익산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내달 6일까지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용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조건은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후 10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돼 초기 부담을 줄였다.

지원 분야는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

입자금으로 나뉜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농업용 시설 설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은 농촌지역 주택 구입과 신축,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와 포함된 세대원 중 1명으로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를 돕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용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귀농인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익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재촌 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귀농 희망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연도 내 귀농을 계획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영농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기관과 농림수산식품진흥재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업신청서와 창업계획서, 교육 이수 실적 증빙 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3-859-496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청소년 스마트폰·SNS 중독 막는다

연중 회복지원 가동... 자기 조절 능력 향상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스마트폰과 등 디지털 매체에 과도하게 몰입한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돕기 위해 연중 회복지원 과정을 가동하며 자기 조절 능력 향상에 나섰다.

이 교육은 스마트폰과 누리소통망(SNS) 같은 디지털 매체에 깊이 빠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집단상담 방식을 통해 스스로 사용 시간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6월 현재 지역 내 4개 학교가 해당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왕신여고 학생 20명이 관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앞으로 정읍초와 정읍북초, 학산중학교에서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관내 학교는 오는 9월 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또래와 경험을 나누는 참여형 모듈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매체 사용 습관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 온라인 도박과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함께 받는다. 더 나아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화면 밖 현실 공간(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대안 활동을 탐색하는 시간도 가진다.

과정을 수료한 한 학생은 “디지털 매체 의존도와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을 깊이 알게 됐다”며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폰을 대체할 현실 공간 취미를 찾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청소년들이 유해한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이용 습관을 지닌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자립 지원 등을 도맡으며 지역 사회 청소년 안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 참여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063-531-30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불용농기계 공개 매각

트랙터 등 14종 30대

군산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하던 농기계 가운데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 불용 처리된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에게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관리기, 콩파종기, 트랙터 등 총 14종 30대이다. 농기계 상태는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개정면 운회길 32)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입찰 참여는 공고일 이전부터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중 군산시 농기계임대사업 회원만 가능하다. 공고 기간은 15일부터 내달 10일까지(4주간)로, 입찰 신청은 내달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

증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낙찰 대상자는 내달 16일 오후 4시 30분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많은 농업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가구당 1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농기계 1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농기계에 여러 명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실시해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홍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공개 매각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불용농기계인 만큼 반드시 사전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조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67명 모집... 18~19일 접수

익산시가 여름철 공원녹지 관리 강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나선다. 익산시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하반기 공원녹지 조경관리 기간제근로자 67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여름철 급격히 늘어나는 잡초와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 인원은 △기계예초 및 수목관리 분야 27명 △풀매기 및 단순노무 분야 40명 등 총 67명으로, 수목과 화단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담당할 현장 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응시 자격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에 게시된 채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된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공원과 녹지 공간에 배치돼 예초와 나무 가지치기, 장미화단 관리, 풀매기 등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조경관리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공원녹지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농업현장 드론 예찰단’ 도입

농가 온열질환 막는다

정읍시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무인기(드론) 3대를 투입해 농경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에 도입한 ‘농업현장 드론 예찰단’은 기존 인력이 직접 돌아보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폭염 특보가 내려진 날,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음, 먼, 동 취락 지역을 살피게 된다. 특히 자동차가 들어가기 힘든 좁은 길이나 넓은 밭까지 하늘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점검 활동에는 확성기(스피커)를 장착한 드론 3대가 쓰인다. 예찰단은 하늘에서 작업자를 발견하면 즉시 휴식을 권하고 작업을 멈추도록 유도하는 안내 방송을 내보낸다.

현장 투입 인력은 청년 농업인들로

이루어진 농업회사법인 유천케어팜 소속 10명이 맡았다.

이들은 두 명씩 5개 조를 이뤄 기기 조종과 상황 관리를 분담한다. 주로 고령자나 혼자 농사를 짓는 이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만약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각 안내 방송을 송출하고, 필요할 경우 구급 기관과 연계해 빠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일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마쳤고, 15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강원원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늘어나면서 농업 현장의 인명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점검으로 단 한 명의 농업인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내달 3일까지

군산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내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달 1일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 지방세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지방세 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장 대상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토 지방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6월 납기 1기분(상반기)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기존 오는 30일에서 내달 3일까지 연장되며, 시민들은 연장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경우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고·납부 지원과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지방세정보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시민들이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납세자들이 기한 연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부안군, 민선 9기 출범 준비 '총력'

주요 현안 사업 정책 반영 선제 대응... 군민 체감행정 강화

부안군은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주요 정책과제와 군정 현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부서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에 따라 새 도정과 전북교육 정책방향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군 주요 현안사업이 핵심 정책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군은 인수위 단계가 당선인의 공약이 실제 정책과제로 구체화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전 부서가 관련 공약과 인수위 논의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군

현안사업과 연계 가능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또 건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와 제안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 새 도정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놓여온 기본소득 공모사업은 부안형 기본소득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기획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기존 사업과의 연계·고도화 방안,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추가 공모 추진 시 군의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논리 보완, 추진체계 정비, 주민참여 방안 마련 등 선제적인 준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정부 주도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대응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계획들은 향후 10년 이상 군의

산업지도와 교통지도를 새롭게 그릴 중요한 국가계획으로 새만금 개발 방향과 서해안 철도 반영 여부에 따라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군은 정부계획이 확정된 이후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핵심 현안의 반영 필요성과 대응논리를 최종 점검하고 발표 전까지 관계기관에 군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건의자료 보완과 사전 협의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정의 모든 정책은 결국 군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각 부서에서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와 정책 성과를 만들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사진=고창군>

새고창장례식장,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지역사회와 상생 다짐

새고창장례식장이 지난 12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조미영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 덕분에 오늘 새고창장례식장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 대표 장례식장으로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더욱 따뜻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인양호행인상' 시상식에서는 부모 공경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조계석, 정길중, 신행순, 김옥정, 김영룡, 조진형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 발전에 헌신한 직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이어온 원광참살이요양원, 메디케어요양병원, 효자요양병원, 고창군노인요양원에는 감사패를 전달하며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축사를 통해 "새고창장례식장은 지난 20년 동안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하며 장례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표 장례기관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고창인재키우기 장학기금 500만 원 기탁식이 함께 열려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새고창장례식장은 매년 장학사업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열려

8개 기업·4개 기관 참여

부안군은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오는 17일 부안예술회관에서 2026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채용 행사로 고용노동부·전북특별자치도·전북산학융합원·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안군일자리센터(이하 센터) 주관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장프레 등 8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면접을 진행하며 NH농협은행 등 4개 기관이 참여해

취업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취업 컨설팅 제공, 아로마 치유 테라피, 이력서 사진 촬영, 캐리커처, 커피차 등 부대행사와 관내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면접비(5만 원 1회) 제공 등 다양한 구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며 매년 1회 개최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행사가 지역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지역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민간정원관리사 양성교육' 성황

고창군 '민간정원관리사 양성교육'이 지난 12일 첫 교육을 성황리에 마치며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최근 반려식물과 정원 가꾸기에 대한 군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과정 내내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특히 적극적인 질문과 참여가 이어지며 앞으로 진행될 교육에 대한 남다른 기대감과 열정을 드러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총 72시간(이론 38시간, 실습 34시간)으로 오는 10월 까지 진행된다. 단순 이론을 넘어 식물 식재, 수목 전정(가지치기), 병해충 관리, 정원 디자인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향후 이웃 정원 컨설팅 등 지역 정원 문화 확산을 이끄는 민간 정원전문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창군은 이번 교육이 생활 속 정원 문화 정착과 주민 참여 확대는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한국해비타트, 화재 피해 가구 자원봉사

김제시는 2026년 (사)한국해비타트 집고쳐주기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13일 기관 관계자와 단체 봉사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생계와 주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부부의 자립과 안전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모인 이번 봉사활동은 시 주민복지과를 비롯해 전주시 행복한사람들의 교회, 군 선장로연합회 등 종교계 관계자들과 성덕면장, 마을 이장,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온정의 손길을 함께 보냈다.

자원봉사자들은 화재로 발생한 유독물질 흔적과 내외부 벽면의 그을음을 제거하고 페인트칠 작업을 진행하는 등 주거 복원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쳤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시와 한국해비타트는 기존에 조성한 재원을 가지고 해당 주택의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할 계획이다.

한국해비타트 관계자는 "화재 재난으로 삶의 터전과 용기를 잃은 장애인 부부가 하루빨리 안락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김제시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보금자리를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지리적표시 고창수박' 명품 브랜드 도약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특별홍보·판매행사 열려

고창군이 대표 특산물인 '지리적표시 고창수박'의 명품화와 수도권 프리미엄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12일에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특별 홍보·판매 행사를 진행하며 수도권 소비자와의 접점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현대백화점 행사장에서는 시식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활동이 함께 진행돼 현장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앞서 지난 5월말에는 롯데백화점 본점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7개 지점에서

'지리적표시 고창 명품수박' 특별 홍보·판매 행사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이번 수도권 주요백화점 입점을 지리적표시 고창수박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최고 품질의 명품 수박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백화점 프리미엄 과일 시장 내 '고창 명품수박'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고창 명품수박'은 하우스 재배 수박 중 7~9kg의 중량과 비파과 당도 선별 13 브릭스(Brix)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최고급 수박으로, 고창군수박연합회 소속 우수 농가에서 생산한 수박만 선별해 출하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024년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 이후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산·유통·마케팅 전반에 걸친 명품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현대백화점 판교점 입점은 롯데백화점 행사에 이어 프리미엄 유통채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명품수박이 롯데백화점에 이어 현대백화점에서도 소비자들이 만나게 된 것은 고창수박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수박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지역현안 적극 건의

김성한 환경부장관 김제 방문...사업 설명

김제시는 지난 13일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행사장과 금산사를 방문한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서울 노원구민을 환영하면서 지역현안과 국가예산 사업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성주 김제시장은 금산사까지 김성한 장관 일행과 동행하며 금산사를 비롯한 김제의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소개했으며 틈틈이 시간을 내어 지역 국가 예산사업들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했다.

행사장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재경김재향우회 사무총장이자 서울 수암산악회 장인 이병준 회장 등 노원구민 600여명이 방문해 행사장을 가득 채웠으며, 행사장 관람 후에는 금산면 종합체육관으로 이동해 점심식사를 겸한 한마을대회를 여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날 건의한 사업은 △김제 용지 정



김제시, 지난 13일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지역현안 및 국가예산 사업 반영 건의 <사진=김제시>

작농원 잔여축사 매입 △김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으로 2026년도에 선정됐으나 부처 예산에 과소 반영됐거나 2027년도 신규 발굴한 사업이다.

정 시장은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등 다양한 관광사업에 대해 김제에 방문해 주신 김성한 장관, 이병준 회장, 그리고

재경향우·산악회원들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민들이 상생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고인돌 야생가족 선사캠프' 호응

전반기 일정 마무리

전북 고창군이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일원에서 새롭게 선보인 '고인돌 야생가족 선사캠프'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전반기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고인돌 야생가족 선사캠프'는 민간단체인 (재)문화유산마을과 손잡고 2026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청동기시대 마을 재현 공간인 죽림선사마을에서 진행되는 1박2일 캠프형

프로그램이다. 본 캠프는 1~3회차 접수 시작과 동시에 조기 매진을 기록하며, 전국 캠핑족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역사·문화 체험 콘텐츠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선사캠프는 '온 가족이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즐기는 진짜 청동기 시대'를 살려 낚시 대회를 구현해 냈다. 직접 만든 선사시대 의상을 입고 유적 탐방을 시작으로 토제품 만들기, 천연염료 그리 그리기 등 책으로만 보던 청동기 문화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특히 이번 캠프의 백미인 '선사인의

부엌' 프로그램은 현대식 캠핑에 익숙한 이들에게 색다른 묘미를 선사했다. 직접 불을 피우고, 화덕에 고기를 구워가며 협동심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밤에는 달빛 아래 판소리 버스킹을 감상하는 등 낭만 가득한 야간 프로그램이 이어져 감동을 더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단순한 야영을 넘어 세계유산의 가치를 몸소 느끼고 가족 간의 유대를 다지는 뜻깊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남은 하반기 일정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단아마을 네트워킹 교류' 성료... 글로벌 관광 거점 도약

김제시는 지난 12일 부랑면 단아마을에서 '2026 K-로컬 관광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그램 2기에 참여 중인 글로벌 청년 24명과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아마을 지역주민 네트워킹 교류 파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공동체와 외부 청년 간의 상생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아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치맥 가든파티를 기획하고 청년들을 초대하는 등 자발적인 교류의 장을 열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들에게 직접 수료증을 전달하며 고고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며칠간 김제 곳곳을 누비며 지역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려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김제의 소중한 글로벌 홍보대사"라며, "주민분들과 함께 진솔하고 따뜻하게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올해 5월부터 총 3기에 걸쳐 72명의 글로벌 청년과 함께하는 K-로컬 관광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SNS 콘텐츠와 온라인 바이럴을 통해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식품산업원, 녹두 반가공 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원 지역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녹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반가공 소재 개발과 홍보·상용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녹두는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 장군의 '녹두장군'이라는 별칭과 연계된 상징 농산물로 고창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원물 위주의 소비가 이뤄지고 있어 산업적 활용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원은 카페, 베이커리, 디저트 업체 등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녹두 분말 등 반가공 소재를 개발하고, 기능성 성분 분석과 품질 표준화를 통해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개발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 지원과 홍보를 통해 녹두의 기능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식품 제조업체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소재를 공급해 지역 농식품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생기 식품산업연구원장은 "반가공 소재 개발과 홍보를 통해 녹두의 역사적 의미와 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농촌활력과, 영농철 양파 수확 농촌일손돕기

부안군 농촌활력과는 15일 상서면 양파 재배 농가를 방문해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본격적인 양파 수확 시기를 맞아 농촌 인건비 상승, 계절근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양파 수확은 작기에 작업이 이뤄져야 상품성과 저장성이 유지되는 만큼 농가의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농촌활력과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농가 현장에 투입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수확 작업에 참여해,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해 주는 데 힘을 보탰다. 농촌활력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현장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업기반 강화 2(題)

완주군, 농업기반시설 정비 국비 9억원 확보 이서 은행제·소양 명덕제 정비 추진

완주군이 노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이서 은행제와 소양 명덕제를 정비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국비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사업은 이서 은행제 여방수로 재설치 사업과 소양 명덕제 정비 사업 등 총 2건이다. 장기간 사용으로 기능이 떨어진 저수지 시설을 정비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서 은행제 여방수로 재설치사업은 노후 여수로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를 통해 저수지 안전성을 높이

남원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용자 지원 농업창업 최대 3억원 용자

남원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 8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용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하로서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그리고 남원시로 이주를 준비 중인 귀농 희망자다.

대출 한도는 농업창업 자금(농지 구입, 시설하우스·축사 등 영농시설 설치 등)의 경우 세대 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은 세대 당 최대 7천5

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출 조건은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주 후 1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최종 대출 금액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 예정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귀농인들이 남원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문화관광재단,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선정

도 지원 선정 '길이 모이는 곳' 공동창작 워크숍 단계별 운영

(재)완주문화관광재단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6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1,600만 원을 확보해 장애예술교육 프로그램 '길이 모이는 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길이 모이는 곳'은 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사운드, 퍼포먼스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은 기관별 맞춤형 예술교육을 시작으로 공동 창작 활동과 통합 워크숍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되

며, 참여자들이 예술적 표현의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완주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 '사이:예술학교',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등 다양한 장애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 장애예술교육 모델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정철우 완주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장애인을 문화예술의 수혜자가 아닌 예술적 표현의 주체로 바라보며, 참여자의 감각과 경험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장애예술교육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근기자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우수기관 표창

완주군이 제81회 구강보건회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그동안 완주군은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부터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자 특성에 맞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 노인인지 보철사업 등을 추진해 군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구강건강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애주기별 예방중심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점을 높이 평가 받은 결과다. 또한 주민 누구나 쉽게 구강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구강건강 형평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미숙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근기자

무지개재능유치원,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대상'

완주소방서 대표로 출전 '영예' 원아 20명 안전 메시지 무대 선배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24회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서 완주소방서 대표로 출전한 무지개재능유치원이 유치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119소방동요경연대회는 어린이들이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 의식을 배우고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유치부 9개 팀, 초등부 6개 팀 등 총 15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무지개재능유치원은 원아 20명이 무대에 올라 밝고 힘찬 목소리로 안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 유치부 부문에서는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이 선정됐으며, 무지개재능유치원은 유치부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초등부 대상은 고창어린이합창단이 수상했다.

완주소방서는 대회 준비 과정에서 참가 어린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즐겁게 배우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경연 전 무대 적응 훈련 등을 통해 성공적인 무대를 준비해 왔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20명의 아이들이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경연을 펼쳤다. 무지개재능유치원은 원아 20명이 무대에 올라 밝고 힘찬 목소리로 안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큰 호응을

/완주=김명근기자

순창군 '행복순창물' 블루베리 20% 특별 할인행사

순창군이 제철을 맞은 지역 특산물 블루베리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공식 소포장인 '행복순창물'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며, 청정 순창에서 수확한 고품질 블루베리를 정가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단,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현재 7,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행복순창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직거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본격적인 출하 시기에 맞춘 이번 행사를 통해 상품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 수익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크기에 따라 1kg에 2만 3,000원부터 3만 6,000원 선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블루베리를 행사기간 동안 일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마케팅을 펼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자원봉사센터, 지역복지 협력체계 강화

관내 기관과 잇단 업무협약체결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유기적인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자원연계 활성화를 위해 관내 주요 복지·청소년·보건·의료기관과의 연이은 업무협약(MOU)에 나선다.

자원봉사센터는 15일,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지영)에서 시민소통담당관을 비롯한 시 관계자 및 센터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등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대하여, 다각적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복지 자원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남원=김종원 기자

이날 첫 협약을 시작으로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확대를 위한 협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17일에는 청소년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관장 서대현)'과 협약을 체결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봉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어 19일에는 중증발달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햇빛(대표이사 임대영)'을 방문해 세 번째 업무협약을 맺는다.

남원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보건, 청소년,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와 자원봉사가 만나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장애인 건강 증진·재활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교육 및 원예공예 활동

순창군은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5회 진행되며, 건강관리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은 △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 △ 2차장애 예방교육 △ 영양관리교육 및 실습 △ 장애인의 건강관리 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5회 진행되며, 건강관리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은 △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 △ 2차장애 예방교육 △ 영양관리교육 및 실습 △ 장애인의 건강관리 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또한 소근육 기능 향상과 재활을 돕는 원예·공예활동도 운영해 참여자들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사진=순창군>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건강관리 역할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순창군보건의료원은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이나 사고로 일시적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휠체어, U자형 어깨 보행보조기 등 대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는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063-650-5382)로 가능하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36홀 규모 주생 그린파크골프장 개장

총사업비 10억원 투입 시설 확충 공인구장 인증 후 전국대회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36홀 규모로 확장된 주생 그린파크골프장 개장식을 지난 13일 개최했다.

주생 그린파크골프장은 2024년 18홀 개장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확장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기존 18홀을 36홀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파크골프장 인근에는 야구 동호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야구연습장 신설·이설하고, 늘어나는 반려인 기구를 위한 애견놀이터도 확장 이전해 스포츠와 여가가 공존하는 상생의 공간



<사진=남원시>

을 완성했다. 이번 36홀 확장 개장으로 그동안 구장 부족을 겪었던 남원시민들과 관내 1,400여 명 파크골프 회원, 인근 지자체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장식 이후 이용객들의 시설 적응과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임시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말 공인구장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향후 공인구장 인증이 완료되면 전국 단위 대회 개최가 가능한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걷기 여행 'MAMA투어' 금과면서 성황

마을 체험 체류형 관광 3회차 운영 설공잔전테마관 등 문화자원 경험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 13일 금과면 일원에서 'MAMA 투어 3회차 금과면편'(순창 마을로 가는 마음 여행)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MAMA 투어 3회차 금과면편'은 순창의 마을과 사람, 문화자원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여행 콘텐츠다.

해당 투어는 순창군 외 지역 참가자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금과면

의 농촌자원과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걷기 여행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순창발효테마파크를 시작으로 도깨비농수산물, 설공잔전테마관, 신매우마을,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금과면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경험했다.

특히 도깨비농수산물에서 진행된 메기 먹이주기 체험과 지역 먹거리 체험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신매우마을 일대를 걸으며 농촌의 정취를 만끽하고,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에서는 전통 농요 공연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순창만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설공잔전테마관에서는 지역 설화를 바탕으로 한 전시를 관람하며 순창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문화와 농촌체험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발효관광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청년 학부모 안정적 정착 돕는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영유아 오감체험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학부모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주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완주군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발전지원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청년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두뇌 업(UP), 성장 업(UP) 영유아 오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음악·미술 활동을 통해 자녀의 정서 성장과 두뇌 발달을 돕고, 학부모 간 양육 정보 교류와 유대감 형성을 지원해 머무르고 싶은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참여 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8개월에서 36개월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며, 1·2차로 나누어 총 40가정을 모집해 완주군 육아공동나눔터에서 운영된다. 맞벌이 가정과 직장인 학부모의 참여 편의를 고려하여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

다. 1차 프로그램은 7월 11일까지로 수박과 여름바다를 주제로 계절감을 살린 오감 활동을 운영하며, 2차 프로그램은 7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곤충과 동물을 주제로 감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정주 여건의 핵심인 보육과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근기자

장수군,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1,800만원 지급

장수군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장려하고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총 1,016세대에 1,800만원이 지급되며, 군은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인센티브 지급은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꾸준히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결과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급 방식은 장수사랑상품권과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이뤄지며, 장수사랑상품권은 15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 참여는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교육지원청-치즈과학고 취업지원체계 구축 맞손

임실군과 임실군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수)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에서 지역 유관 기관과 함께 '인재양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한국 치즈산업을 이끌어갈 지역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취업·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무협의회에는 임실군, 임실교육지원청,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학생취업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유가공 산업과 연계한 협력, 상권명소화를 통한 청년창업공간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이 한국수자원공사 공모 등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학생들이 취업 및 청년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교육지원청과 임실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 학생들이 졸업후에도 지역에 정착하여 청년창업 등으로 이어져 지역상생과 인구유입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일 기자

진안군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 본격화

진안군의회는 15일 진안군의회 2층, 의정실에서 진안군의회 의장-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선을 축하하고 제10대 의회 개원을 위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진안군의회 의원 당선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과 안정적인 개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동창욱 의장은 당선인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하며, 군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로서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제10대 진안군의회 의원들의 출범과 안정적인 의정 운영을 위해 개원 전 주요 일정과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최초집회 일정 △개원식 등 제10대 의회 출범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제10대 진안군의회 최초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임시회)에 따라 내달 6일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민선 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출범

'국민주권 지방정부 최우선' 군정 인수 절차 돌입 본격

민선 9기 임실군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할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마침내 뜻을 올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5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출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인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을 비롯해 송기춘 인수위원장, 신대용 자문위원장, 박현숙 부군수와 인수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민선 9기 임실군정의 힘찬 첫걸음을 축하하고, 새로운 임실의 성공적인 도약을 다짐했다.

행사는 헌관식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위원 위촉식, 인수위원장 인사말, 당선인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기간과 분과 구성, 부서별 업무보고 일정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인수위는 민선9기 임실군정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주요 군정 현안과 공약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새로운 군정 운영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농업·농촌, 복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출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임실군>

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행정혁신 등 분야에 걸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수위 조직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높였다.

위원장은 임실군 성수면 왕방리가 고향인, 송기춘 대통령소속 군사방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장관급)·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부위원장은 이원섭 전 임실군 산업건설국장이 선임됐다.

이밖에도 행정, 농업, 복지, 문화관광 등 각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해 총 14명의 위원진을 완성했다.

위원회는 △기획·조정, △환경·복지,

△산업·건설, △문화·관광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별 전문위원들이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선9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앞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 사업과 재정 여건, 공약 이행 가능성, 법적·행정적 검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군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주권 지방정부'를 군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통합과 실용의 행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군정 인수와 임실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일 기자

무주군, 노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추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비 17억 9,951만원 확보

무주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7억 9,951만 원을 확보했다.

2026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오래된 공공건축물의 에너

지 성능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설비 및 LED 조명 설치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무주읍 등 6개 읍면의 노후 경로당 23곳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무주군은 총사업비 25억 6,659만 원을 투입해 대상 경로당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은숙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실시시설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지방세 안내서 발간

납세 편의절세 정보 제공 군민 눈높이 맞춘 안내서

장수군은 군민들이 지방세 제도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이야기' 책자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지방세 제도와 납부 방법, 감면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등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지방세 정보의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책자에는 올해 달라진 지방세 주요

제도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감면 혜택이 수록됐다.

또한 지방세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처리 절차를 안내해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무행정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방세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군민들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책자에는 지방세 납부 방법과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각종 신고·납부

기한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담아 군민들이 지방세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최훈식 군수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군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2026 지방세 이야기' 책자가 군민들의 납세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책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실, 유관기관 등에 비치될 예정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주민참여연구단' 공개 모집

주민과 함께 미래 설계

지난 3월 '무주군 미래비전 205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무주군은 정책사업의 실행력 제고와 군민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연구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주군청 누리집(http://www.muju.go.kr/) 공고 및 무주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알리를 참고해 오는 26일까지 전자우편(sge1472@korea.kr), 또는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3층 정책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무주군 주민참여연구단은 4개 분과(1분과: 도시, 교통, 환경, 안전 / 2분과:

농축수산, 산업, 경제 / 3분과: 문화, 관광, 스포츠 / 4분과: 보건, 복지, 교육) 4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12월까지 총 3회에 걸친 정기 회의와 주민공청회(총 1회)를 통해 무주군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아이디어 발굴, △지역·분야별 현안 토론 및 미래 사업 발굴, △정책의식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사항 발굴자 역할을 한다.

또한 '무주군 미래비전 205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내용을 공유·검토하며 분과별 보충 및 의견 개진에 참여하게 된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내 각 사회단체는 물론, 마을 구심

체 추천을 받은 분들을 주민참여연구단으로 최종 선정할 것"이라며 "무주군 기본사회로 대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주민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주민참여연구단 구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 또한 현안 토론 및 미래 사업 발굴, △정책의식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사항 발굴자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7월 1일부터 군민 대상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무주군청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 접속 후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부착된 설문조사 QR이나, 서면 설문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농촌왕진버스 사업' 실시

의료취약주민 건강복지 향상

장수군은 지난 11일 장수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농촌지역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 인력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 진료와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과 농협중앙

회가 주관하며, 총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수읍과 장계면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장수농협에서 먼저 진행된 이번 사업에는 많은 농업인과 주민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장계농협에서는 이달 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전문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검안 및 돋보기 지원, 근골격계 질환 관리, 건강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운영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농촌개발 관리사업장 '안전 최우선'

재해예방 기술지도 교육 진행

임실군이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농촌개발사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나갔다.

임실군은 지난 11일 임실행복나눔센터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농촌개발사업 현장 관계자 대상 재해예방 기술지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농촌개발사업 추

진 지구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시공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장마철과 집중호우 등 하절기 기상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군은 이번 교육 이후에도 정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사업장별 위험요인을 상시 관리하며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일 기자



최훈식 군수, 양파 수확 현장 찾아 농가 격려

장수군은 지난 12일 본격적인 양파 수확기를 맞아 산서면 양파 재배 농가를 방문해 수확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양파 수확과 모내기 등 영농철을 맞아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훈식 군수는 양파 수확 현장을 둘러보며 작황과 생산 여건을 살피고 농업인들과 만나 재배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유통 현황, 품질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

다. 산서면에서 생산되는 양파는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수군은 양파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양파 재배 지원사업과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이 지향하는 미래는 단순히 재배기술 보급과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모델 만들겠다"

농어촌 기본소득 7월 신청 접수

진안군청 진안군수는 15일 진안군청 기자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안형 순환경제 모델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향후 추진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진안군은 지난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진안군은 전국 44개 군이 참여한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공모에 대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왔다.

전 군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선

정은 단순한 공모사업 유치를 넘어 진안군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오랜 기간 지역소멸 위기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감내해 온 군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룬 결과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2만 4천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라며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우리 군이 지향하는 미래는 단순히 농어촌을 지원하는 사회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 키우기 좋으며, 어르신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라며 "돌봄·의료·교통 등 군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기본서비스를 함께 강화해 진안형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오는 7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해 8월부터 본격적인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정읍사회복지관, 취약계층 100가구에 김치 나눔

정읍사회복지관이 지난 12일 수성동 주공1단지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100가구를 위한 여름 김치를 직접 담그고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여름철을 맞아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나눔 문화를 지역 사회에 퍼뜨리려는 목적도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주택관리공단 정읍수성1주거복지지원센터 직원들을 비롯해 수성동 주공1단지 통장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봉사자들은 정성껏 김치를 버무리고 포장해 홀로 지내는 어르신 등 소외계층 100가구에 따뜻한 마음을 건넸다.

정관일 관장은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해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참여형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 왕정동-교육체육과, 영농철 농촌 일손 돕기

남원시 왕정동(동장 이영규)과 교육체육과 직원 일동은 지난 12일, 분주한 영농철에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이번 일손 돕기는 왕정동과 교육체육과 직원 20여 명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왕정동 딸기 농가의 수확 작업에 힘을 보탰다.

해당 농가는 "본격적인 딸기 묘목 제거 시기에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무더운 날씨에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영규 왕정동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내 노동력 확보가 쉽지 않아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어 농촌 현장을 찾아 적기에 영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익산소방서, 한솔홈데코 직원 6명 소방서장 표창

심폐소생술 경연 대회 참가 최우수상 수상 영예

익산소방서는 15일 소방서 3층 소방서장실에서 심폐소생술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서장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표창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은 한솔홈데코 익산공장에 근무하는 박연표 기능장, 이동욱 책임, 손영오 선임, 양준강 선임, 백승규 선임, 한주원 선임 등 총 6명의 직원이다.

이들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간 맹연습을 통해 지난 4월 3일에 개최된 '제15회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기량을 선보인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자격으로 '제15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대학·일반부 부문에 출전하는 등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라명순 소방서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린 한솔홈데코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 안전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 주생면, 출생아 가정에 기저귀 전달

남원시 주생면 행정복지센터가 소중한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친화적인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한 발걸음을 옮겼다.

주생면 맞춤형복지팀은 '찾아가는 생일 축하'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에 태어난 관내 출생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축하 인사를 전하고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를 전달했다.

'찾아가는 생일 축하'는 주생면이 지역 내 출산 가정을 직접 찾아가 아기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마련한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다.

이날 맞춤형복지팀에서 출생아 가정을 방문해 건강한 성원을 바라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아기 성장에 맞춘 기저귀를 전달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며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출산·양육 관련 복지 제도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선물을 전달받은 출생아 부모는 "아기의 탄생을 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찾아와 함께 축하해 주고, 꼭 필요한 기저귀까지 선물해 주셔서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김제 장애인 바리스타 2명, 세계 커피대회서 쾌거

대상·최우수상 수상

김제시는 김제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운영하는 사회적 직업재활 공간 'I got everything' 카페 소속 바리스타 2명이 지난 14일 열린 2026 제4회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내 '2026년 세계커피대회' 장애인 바리스타 부문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소속 바리스타들은 경연 과정에서 뛰어난 커피

제조 전문성, 고객 응대 능력을 인정받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성과는 지역 전문 교육기관인 김제커피아카데미학원과 협력해 이뤄낸 결실로 평가된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맞춤형 교육과 지역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인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 새마을지도자 봉동읍부녀회, 반찬 나눔

완주군 새마을지도자 봉동읍 부녀회가 최근 지역 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나눔 행사는 스스로 반찬을 조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식생활 안정을 돕고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녀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겉절이, 불고기, 장조림 등 제철 재료를 이용한 영양 가득한 반찬

을 정성껏 조리했다. 이어 직접 지역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반찬을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행란 새마을지도자 봉동읍 부녀회연합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온정이 넘치는 봉동읍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북인재개발원 교육생, 익산시에 장학금 기탁

익산시에 취약계층 아동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이 전해졌다. 익산시는 15일 전북인재개발원 제26기 핵심리더 영어반 교육생들이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한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전북인재개발원 핵심리더 영어반 과정의 강의를 맡고 있는 신명섭 강사의 제안으로, 교육생 33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마련했다.

강사와 교육생들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함께 배우고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이번 기부를 추진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응원하고자 나눔에 나섰다.

신명섭 강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미륵산 봉사단,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익산시 동산동에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달됐다.

동산동은 '미륵산 봉사단(단장 이후범)'이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륵산 봉사단은 지난 14일 대상 가정을 찾아 낡은 벽지를 새로 교체하고 집 안팎을 정비하는 등 대상자가 밝고 따뜻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이후범 단장은 "작은 재능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저전거! 안전하게 타요! 자전거 안전을 지키는 5가지 약속



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 자전거 음주운전 NO!
2.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 자리로 통행
3. '보도'와 '횡단보도'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세요
4. 자전거 안전속도(20km), 교통 법규에 준수해요
5. 주행 중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 NO!

〈一事一言〉



6조 개발 아슬아슬한 첫 단추, '기본'을 일깨운 당선인의 경고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거대한 개발사업일수록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화려한 청사진이나 장밋빛 전망이 아니다. 수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지역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사업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기본'과 '원칙'이다. 기업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행정은 공정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며, 시민은 그 과정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거창한 계획도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성에 불과하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전북은 물론 전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민간 개발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시행사 측이 밝힌 사업비만 약 6조 원에 이른다. 초고층 관광타워와 대규모 주거단지,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는 전주의 도시 지형을 바꾸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얼마 전 열린 기공식 역시 그러한 기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였고, 시민들 역시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기공식의 화려한 조명 위에서 드러난 현실은 결코 밝지만은 않았다. 사업 시행사인 자광이 해당 부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대부료, 변상금 등을 체납해 토지가 압류된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물론 체납 금액 자체가 사업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다. 수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지방세 납부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

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하다. "6조 원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왜 세금은 체납했는가"라는 질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금 운용상의 판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거대한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가 먼저 보이기 때문이다. 신뢰는 거창한 사업설명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킬 때 만들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이 세금 완납과 원칙 준수를 강하게 주문한 것은 매우 신선하고 시의적절한 메시지라고 평가할 만하다. 특히 당초 약속했던 '선 타워 건립, 후 아파트 개발' 원칙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개발사업이 수익성만을 쫓는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약속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간 전북 지역의 대형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제기됐던 비판은 행정의 원칙 부재였다. 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 아래 각종 우려와 문제점들을 못본체 묵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업성 검증보다 투자 규모가 강조됐고, 위험 요소보다 기대 효과가 부각됐다. 그 결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혜 논란과 행정 불신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전주의 미래를 바꿀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은 성공을 바란다. 그러나 성공을 바라는 마음과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오히려 사업이 중요할수록 더 엄격한 검증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가 걸린 사업일수록 기업은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보여야 하고 행정은 더욱 냉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다시 풀어서 끼우는 용기가 필요하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6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시민의 불안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결국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원칙을 지키며 추진되는가에 달려 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이제 출발선에 있다. 기업은 체납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시민 앞에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 행정은 어떠한 외압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시민들은 사업의 진척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주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조지훈 당선인의 경고는 단순한 세금 독촉이 아니다. 그것은 전주의 미래를 결정할 대형 개발사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을 상기시키는 선언이다. 화려한 조감도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며, 거대한 투자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 성공한 사업으로 기록될지, 또 하나의 논란으로 남을지는 결국 가장 단순한 진리를 얼마나 충실히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전북도민은 지켜볼 것이다. 사업의 진행사항과 새로 당선된 전주시장을..

사설

57%의 경고장, 권력은 하락의 시작을 두려워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7%를 기록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결코 낮은 성적표는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년 차 지지율과 비교해도 중상위권에 속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이번 결과를 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 국민이 보내는 경고의 신호가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지지율의 수준이 아니라 하락의 속도다. 불과 몇 주 사이 7%포인트가 빠졌다는 사실은 민심이 결코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쪽짜리 지방선거 승리의 여세에 취해 권력이 민심을 당연한 지지로 오인하는 순간, 국민은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취임 1년 시점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당시에 높은 지지율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권력의 오만과 소통 부재,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는 결국 권력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권력은 성공의 순간보다 위기의 전조를 읽어내

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정권 출범 이후 국민들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해 왔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빠르다. 정치적 승리에 안주하거나 지지율을 방패삼아 독선적 국정 운영에 나선다면 국민의 마음은 순식간에 등을 돌릴 수 있다.

57%는 성공의 훈장이 아니다. 국민이 아직은 기대를 거두지 않았다는 마지막 신뢰의 표현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숫자가 아니라 내일의 방향이다. 앞으로 지지율이 다시 60%대로 회복될지, 아니면 40%대로 추락할지는 결국 정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치는 숫자로 평가받지만, 정권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숫자 뒤에 숨은 민심이다. 지금의 57%는 추배를 들라는 뜻이 아니다. 권력의 오만을 경계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국민의 노란 신호등이다. 그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순간 위기는 기회가 되지만, 외면하는 순간 몰락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

독자투고

평온한 마을의 파수꾼, '마을 방범용 CCTV'에 관심



최근 공동체 치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마을 곳곳을 비추는 방범용 CCTV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으로서 CCTV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강력한 범죄 억제 효과다. 범죄심리학에서 '누군가 보고 있다'는 인식은 범죄 의지를 꺾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마을 진입로와 주요 지점에 설치된 CCTV는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범죄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신속한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다.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CCTV 영상은 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

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목격자를 찾기 어려운 심야시간대나 농촌 지역에서 CCTV는 경찰의 제2의 눈이 돼 검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다. 치매 어르신, 장애인 등 농촌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 발생 시 마을 방범용 CCTV는 수색 범위를 좁히고 위치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히 범죄 예방을 넘어 이웃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보장 장치다.

안전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 오늘도 마을 골목길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CCTV가 주민들에게 든든한 파수꾼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주경찰서 범죄예방계
순경 신은진

오늘의시

진실보다 힘든 것 / 박노해

진실이 꽃이 피고 진실이 익어오고	실은, 거짓이 더 힘든 일이다	보라, 마침내 거짓은 스스로 진실을 드러내느니
진실이 빛나기는 참으로 험겨운 것이지만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은 거짓을 치고 거짓은 죽음을 불러	실은, 진실이 진실로 사는 길이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 사면으로 7년6개월 만에 출소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창간 /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8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완주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장수지국 010-88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익산시, 푸른 정원으로...10년의 녹색 대전환



510만 그루 나무 심기 초과 달성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신흥공원 랜드마크 조성

익산시가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10여 년간 이어온 끈질긴 생태 혁신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숨 쉬는 '대한민국 대표 녹색 정원 도시'로 완벽하게 체질을 개선했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익산이 지난 10년간 시민들과 함께 일궈낸 생활권 녹색 인프라 구축 성과와 함께 미래 정원 도시로의 도약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간 시는 '도시를 숲으로, 일상을 정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도심 전역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주민 참여형 정원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가꿨다. (편집자 주)

◆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초과 달성...도심 녹지축을 혁명하다

익산 생태 전환의 큰 실천 과제 중 하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었다. 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과 민간이 손을 잡고 총 510만 3,731주의 나무를 식재하며 목표를 가볍게 넘어섰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축구장 약 33개 규모에 달하는 26개소(23만 4,000㎡)의 도시숲을 도심 한가운데 조성했다.

특히 오송누리숲길 등 산업단지외 폐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기후대응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익산의 든든한 허파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 조망까지 확충해 야간에 안전한 시민 안식처로 진화했다.

여기에 평화교육에서 목천교회로 이어지는 대간선수로변 3.5km 구간의 명품 가로수길, 왕궁 국가식품클러스터 대로변 청단풍 거리, 남창초·모현초 등 8개소에 조성된 '자녀안심 그린숲'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이자 시민들의 견고 싶은 일상 산책로가 됐다.

◆ 용안생태습지부터 아가페까지...침표가 있는 정원 도시 구현

시는 도시를 넘어 익산 전역을 정원 문화로 물들이고 있다. 현재 북부권 생태 관광의 핵심 거점이 될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총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해 금강 수변의 천혜 경관과 백제 문화를 융합한 8개 주제 정원을 2026년까지 완공, 전북을 대표하는 생태 힐링 명소로 키워낼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 2021년 전북 제4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돼 베일을 벗은 황등면 '아가페정원'은 메타세쿼이아 숲길의 비경을 무기로 지난해에만 36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며 익산의 대표 정원으로 우뚝 섰다.

아울러 4년간 도심 유휴지 59개소에 조성된 '우리동네 어울림정원'은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생활 속 정원 문화의 모범 사례가 됐다.

◆ 신흥공원의 랜드마크 변신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성공 안착

상수원 보호를 위해 50년간 닫혀있던 '신흥공원'은 도심 속 명품 힐링 공간으로 대변신했다. 시는 3.8ha 부지에 24만 주의 꽃과 나무를 심어 무지개정원, 수국정원, 핑크물리원을 완성했다.

특히 '꽃바람정원'의 면적을 기존보다 2.5배 넓은 1만㎡로 대폭 확장 통합해 사시사철 꽃이 피는 경관 거점으로 가꾸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4차선 도로로 단절됐던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을 잇는 '친환경 보행교'를 개통해 시민들이 단 한 번의 신호등도 마주하지 않고 두 공원을 안전하게 걷는 보행자 천국을 완성했다.

또한, 실효 위기에 처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대성공을 거뒀다.

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난개발을 막고 마동, 수도산, 모인, 소라공원 등 4대 도심 공원을 새롭게 조성해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도심 한복판에 쾌적한 대형 허파를 확보했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지난 10년간 시민들과 함께 땅 흘려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꾼 결과, 익산은 이제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생태 강소도시로 자리잡았다"며 "그동안 다져온 독보적인 정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민 누구나 집 문을 열면 숲과 정원을 만날 수 있는 품격 있는 녹색 안심 도시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JBT 전북 타임스 신문

제14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자연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접수기간 2026년 6월8일(월)~7월9일(목)

주제 :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

공모 기간	접수 기간 : 2026년 6월 8일~2026년 7월 9일	참가 자격	전북도내 초등학생
	결과 발표 : 2026년 7월 13일	출품 형식	8절지 도화지(B4 용지)
	수상자 시상 : 2026년 9월 4일	출품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문의 사항	이메일 : jbn8800@daum.net 전화 : (063)282-9601 / 010-7454-1559		

대상(3명)	전라북도교육감상(1명) 전라북도의회장상(1명) 전라북도지사상(1명)
최우수상(4명)	전주시장상(2명) 전주시의회장상(2명)
우수상(20명)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장려상(50명)	(주)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 특별상(3명) 국회의원상

기타 사항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정으로 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 · 주)전북타임스신문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